천국 도시락 vs 세상 급식

(마23:23~28)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천국 도시락 vs 세상 급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 도시락과 세상 급식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뭐 무상급식이던 아니면 유상급식이던 급식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겉은 깨끗하고 속은 너무너무 더러운 것을 담고 있는 잔과 대접이 되고,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사람의 시체를 담고 있는 그런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시스템을 벗어나서 도시락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시락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러한 외식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이 될 수밖에 없고, 겉만 회를 칠하여 깨끗해 보이는 속에는 시체를 담고 있는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도시락과 세상 급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비교를 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와는 다르게 학교 안에 매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처럼 급식시스템으로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지 않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학년에 해당되는 오후 수업을 해야 되는 어린이들은 전부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생각해 보면 학교 울타리 안에는 군것질거리건, 식사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는 전교생이 한 반에 막 80명 90명씩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전교생이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시간 중 유일하게 가능한 군것질 통로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 옛날 정문, 당시 뒷문으로 쓰다가 뒷문을 폐문을 시켰어요,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폐문 바깥쪽으로 폐문을 벽을 삼아 가지고 천막을 치고,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떡볶이랑 뭐 오뎅이랑 조그마한 감자를 볶아서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그 이렇게 돌로 만든 기둥이 있고 대문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로 만든 큰 대문과 돌기둥 사이로 요만~큼 틈이 있는데, 돈을 고 틈으로 건네주면 아주머니가 긴~ 꼬챙이에다가 떡볶이를 꽂아 가지고 입을 아~, 고 틈바구니에 아~ 벌리고 있으면 밖에서 고 틈바구니로 해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감자도 그렇게 하고.
저는 떡볶이를 안 먹기 때문에 감자를 주로 그렇게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하고 고 문 틈을 보면은 문과 기둥 고 부분이 아주 새까매요, 기름하고 뭐 떡볶이 이런 게 묻어 가지고.

그게 유일한, 그러나 그것조차도 학교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죠,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군것질 거리지마는, 그 군것질거리도 학교 울타리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같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급식 시스템이 있거나 뭐 매점이 있어 가지고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유일한 길이 학교 바깥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학교 다니던 그 당시 도시락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겉만 깨끗하고 속에는 하수도 아래 침전된 오물을 담아놓은 그릇처럼 더러운 인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이 결정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도시락과 급식시스템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무라시면서 잔과 대접을 등장시킵니다.
잔과 대접을 등장시키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이건 2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위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언행일치라고 얘기하는데, 언행일치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차원에서는 말도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행일치라고 말해야 될 거에요, 심행일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마음속과 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행동, 행위, 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잔과 대접이라고 소재를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지금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으로 연상을 하고 계십니다.
잔과 대접에 먹을 것을 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음이 무엇을 먹는다는 얘깁니까? 이제껏 계속 되어진 얘기에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 마음이 욕구라는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 비워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때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 선악판단을 자기가 하고 사회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워 가지고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으로 채울 때, 거기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불만이 나타나고 걱정이 나타나고 또 불안이 나타나고 공포까지 나타납니다.
채워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3일 만에 끝나던 하루 만에 끝나던 한 시간 만에 끝나던 일 년 만에 끝나던 간에 하여간… 그러면 또 채워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비어있는 마음이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주님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잔과 대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여야 정상인 것인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도시락 시절을 거부하고, 급식시스템을 만들어 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의 배를 채울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이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러운 것을 마음에 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나가자, 외부로부터 차단되면서 이 사마리아 성이 모든 먹을거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먹을거리의 공급이 중단 되어 버려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한 여자가 와서 이웃집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나의 아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이웃하고 같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이제 우리아들 먹었으니 너희 아들 내 놓아라 너희 아들 같이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자' 이럴 때에, 이 여자가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약속을 어긴 여자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자기 아들을 내 놓아서 미리 잡아먹은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자식으로 기뻐하려 하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자식으로 채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마음을 채워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머리털 끝만큼도 없습니다.
그 옛날 도시락 시절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내에서 내 마음을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옛날 도시락 시절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집에서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 도시락으로 배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유혹 받고 타락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우리 마음을 채워 넣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 나타나는 일은, 우리 스스로 배를 채우고 싶은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죄의 습성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돈, 좋은 거다, 이 돈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울타리 안에서 좋은 것을 정한 겁니다, 마음대로.
이게 바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배가 차야 되고 천국으로만 배가 불러야 되는 마음에, 마음이라는 건 원래, 원래 태초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마음이었고, 타락 이전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했기 때문에 천국 도시락이 계속해서 공급되었었던 거지요.

그러나 천국 도시락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듯이, 그러니까 탐욕은 강도질이요 노략질을 말해요, 원어의 뜻이.
방탕은 무절제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마음을 채워 가지고 기뻐하려 하잖아요? 그 사업을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절제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것을 마음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누구도, 아내를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 한다, 이게 강도짓이고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꽃 피워서 잘 되게 해 보겠다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절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은 기쁨을 얻어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 도시락,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갖고 사명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새삼스럽게 얻어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원래.
기쁨은 천국에서부터 천국 도시락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 도시락을 통해서 기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할 때에, 마음을 채우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 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왜 시체 얘기를 할까요?
잔과 대접, 먹을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외식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회칠한 무덤으로 변해 버립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유월절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들 때에, 예루살렘 성내에 숙박 장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200만 가까이 모이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성 밖의 동굴 같은 데서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동굴에다 썼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덤인줄 모르고 캄캄한 밤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서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부정하게 돼서 예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회를 칠한 게 아니라, 하얀 회를 칠해 가지고, '이곳은 당신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숙박 장소로는 부적절한 무덤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회를 칠해 놓으니까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사람의 뼈가 있어요.
그럼 왜 이 비유를 드실까요?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사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탐욕이고 방탕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사업을 통해 얻으려고 할 때, 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추진하면서.
이게 뭐에요? 시체와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시절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체는 움직이는 동물이 죽어서, 거기에 움직임이 없어진 몸을 말해요. 그렇지요?
그 움직임이 없어진 몸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그것에 와 닿고 있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대상이 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초등학교 같은 울타리 안에서, 내 배를 채우려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과 장사를 마음에 소원하고, 그래서 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이때에 그 장사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에 없는 거예요.
그 장사함을 통하여, 사업함을 통하여 기뻐하려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서 슬프고 그것이 되서 기쁘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체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 뜻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없는데 자식을 통해 기뻐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식이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이게 시체를 주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시체 덩어리 안에, 부패한 시체와 뼈 조각들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을.
어떤 배수진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는 기뻐할 이유를 찾을 것이 없다, 기뻐할 이유를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서 내게 주어지는 슬픔으로부터도 걱정거리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여러분 못 느끼겠습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쁨을 찾는 게 아니다, 기쁨은 오직 천국 도시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천국 도시락을 통해서만 내 배가 채워진다, 배수진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상관없어요.
성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실패로부터도 자유로운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남 보기에 부끄러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기뻐하고 있어도 안 되고, 기뻐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도시락을 먹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유전 죄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좋게 여기면서 선악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을 당겨서 내 마음에 채워 넣고 소원을 이루고 욕구를 이루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전 죄인 원죄의 습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를 채우려는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주님께서 천국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리에서 그분이 메시아이니까,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고 그 십자가로 죽어있는 죽음이 고백 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하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도시락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수업이 길어지면 두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을 채우는 급식시스템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급식시스템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마세요,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도시락을 통해서 배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은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지, 주님의 삶과 사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 했습니까?
유일하게 기뻐했던 것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도시락과 세상 급식 기억하세요.
세상 급식은 사탄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중단하고 천국 도시락을 먹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천국 도시락으로 배부르고 기뻐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에 급식을 하려 하는 한 우리는 겉만 깨끗한 잔과 대접, 시체를 가득 담은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 도시락, 천국의 군것질들로 배부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